

《증보문헌비고》〈병고〉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시기 마정에 대한 자료의 사료적가치

리 성 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정일전집》 제8권 232페이지)

만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투쟁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곤 하였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에서 말은 중요한 군사장비의 하나였다.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운수 및 통신수단이 없었던 고대, 중세시기에 말은 사람들의 왕래와 통신연락보장은 물론 전쟁시기 군수물자운반과 기병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으로서 말을 많이 키우고 관리하는것은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 나라 중세봉건국가들에서 마정(말에 대한 정사)은 나라의 중요한 국사로 인정되어왔다.

《증보문헌비고》의 마정관계자료는 《증보문헌비고》〈병고〉(권125 병고17 마정조)에 실려있다.

여기에는 삼국시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차례로 해당 왕조들에서 마정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진행하여온 사실과 그의 쇠퇴정형, 목장이름, 지리적위치, 폐지된 목장들이 각 도별로 수록되어있으며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규제된 마정관계자료 그리고 마구간과 목장에 관한 자료들이 상세히 수록되어있다.

이 글에서는 《증보문헌비고》〈병고〉에서 조선봉건왕조시기 마정에 대한 자료만을 분석하려고 한다.

《증보문헌비고》〈병고〉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시기 마정에 대한 자료의 사료적가치는 무엇보다먼저 15세기 마정이 비교적 강화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는데 있다.

《증보문헌비고》〈병고〉에서는 15세기 조선봉건왕조에서 《마정》이 정비강화되고 우수한 말들을 많이 길러낸데 대하여 자세히 전하고있다.

15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우량종의 말을 많이 길러 우리 나라에서 리용한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대량적으로 수출하였다.

《증보문헌비고》〈병고〉에는 1421년에 1만마리의 말을 수출한 사실을 비롯하여 세종시기에 1만마리씩 수출한것이 2번, 5천마리씩 수출한것이 2번이나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어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나라에 우수한 말들이 많았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말을 사들여오는것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증보문헌비고》〈병고〉에는 《경영관 유호인이 제의하였다. <지금 야인들에게서 말을 사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목장들에도 좋은 말들이 많은데다가 비록 그들이 말을 가지고 와서 바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물리쳐야 할터인데 하물며 그것을 사올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번 말들을 사들였으니 너의 말이 과연 옳다.>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바로 이 시기에 마정이 정비강화되어 훌륭한 말들을 많이 길러내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증보문헌비고》〈병고〉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시기 마정에 대한 자료의 사료적가치는 다음으로 16세기 - 19세기의 마정형편에 대하여 상세히 보여준다는데 있다.

16세기에 들어와 봉건통치배들은 나날이 부패타락해갔으며 이에 따라 마정도 쇠퇴해져갔다. 당시 왕자리에 있는 연산군은 마정전반을 추켜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사치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져 국가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마정에 대한 문제에서도 연산군은 자기의 전용말목장을 크게 확장하는데만 피눈이 되어 돌아쳤을뿐 나라의 마정전반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아 마정은 혼란상태에 빠졌다.

1506년 연산군이 밀려나고 중종이 왕자리에 오른 후 봉건국가는 연산군시기 형클어졌던 마정을 재수습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국왕전용말목장의 대부분을 폐기하고 그곳에서 사양하던 말들을 내, 외사복시에 소속시켜 정리하고 경작지로 만들었던 목장도 회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봉건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정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중종이 《폐단》을 운운하면서 말목장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제의를 잘 승인하지 않고 그것을 병조나 사복시에 내려보내여 토의에 붙이게 하거나 대책안작성으로 그친데 있으며 봉건정부의 반인민적인 목장관리정책으로 목자들과 각 고을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평락된데 있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구실로 말목장을 없애버렸거나 왕실과 개별적인 관료들이 비법적으로 말목장을 차지한것과 관련되어있었다.

봉건정부에서는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목장에 있는 길들이지 않은 말들을 그대로 리용할수 없으므로 미리 점검선출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주어 잘 길들이면서 련습시키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당시 마정의 하나였던 말에 대한 점검과 장악사업을 진행하게 된것은 《말대장에 올라있는 수자들이 허위》라는 자료와 《지금 섬에 있는 말은 대장(문건)에나 올라있고 실지 수량이 없다보니 해마다 줄어들고 달마다 없어진다.》라는 자료에서 알수 있지만 당시 국가질서가 문란해져 《모든 사무가 다 폐지상태》에 있고 《나라의 형편이 해이될대로 해이되어 모든 제도가 형클어져》있었기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말을 훈련시키기 위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목장에서 방목하는 말들은 들짐승이나 다름없는 형편에 처해있었다. 이것은 왜적의 빈번한 침입과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되고 략탈을 당하였으며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이 마정을 나라와 군대의 중요한 정사라고 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목자들을 착취하는데만 피눈이 되어 돌아갔기때문이었다.

17세기에 이르러 봉건통치배들은 전쟁의 피해를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힘을 넣을 대신 당파싸움만 일삼았으며 이로 하여 봉건국가의 통치질서는 문란해지고 국력이 약화되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평락되었다.

7년간의 임진조국전쟁의 후파로 인한 피해는 마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수많은 말목장들이 폐기되고 군마, 역마보장과 관리사업도 잘 진행되지 않아 심각한 말부족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로부터 봉건정부에서는 이전에 경기, 삼남, 관동, 관북의 6개 도 및 의정부에서 삼명일(봉건사회에서 왕의 생일, 설, 동지의 세 명절)이나 나라에 경사가 생겼을 때 토산물과 말을 진상하던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또한 1652(효종 5)년에 봉건정부에서 목장과 지방의 모든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던

말들을 선발하여 금군에 공급하게 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시기 함경도지방에서는 청나라의 말을 많이 사들여다가 한양을 비롯한 남쪽에 다시 팔아넘기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6진의 고을원들은 나라에 바칠 공물까지 말을 사는데 서슴없이 리용하였으므로 1674년에 사복사에서 이것을 금지시킬데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당시 말 1마리의 값이 열집의 재산과 맞먹는데다가 먼길에 재물이 많이 소비되어 수지가 맞지 않았으나 통치배들의 리해관계로 하여 말무역은 끝내 금지시킬수 없었다.

국영말목장이 감소되고 쇠퇴하여가던 시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사영말목장들이 생겨났다.

원래 조선봉건왕조성립직후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말목장들이 존재하였으나 그 수가 극히 적었고 그것마저도 봉건국가의 중앙집권적통치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더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거의나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초에 이르러 대규모사영말목장들이 출현하였다.

《증보문헌비고》〈병고〉에는 1627(인조 5)년에 비변사에서 국왕에게 올린 제의서가 올라있는데 그에 의하면 《제주(도)에 사는 김만일은 자체로 기른 말이 1만여마리나 되는데 한나산의 거의 절반을 뒤덮는다고 합니다. 그가 이 나라 땅에서 살고 그의 말들이 나라토지의 풀을 먹고있으니 나라에서 준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설사 열마리중에 아홉마리를 나라에서 리용한다고 해도 허락하지 않을수 없는데 하물며 1만마리중에 1천마리아 아까울것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본 주에 지시하여 먼저 건장한 말 1천마리를 올려보내도록 하여 군용으로 보충하게 할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왕은 400~500마리를 가져다 쓰게 하였다.》고 한다.

한편 《광해군일기》에는 1618년 6월에 국왕이 《제주(도)에 사는 김만일은 자체로 기른 말이 1만마리나 된다고 한다. 그가 천마리의 말을 군마로 바쳤으니 후하게 상을 줄것이다.》라고 한 내용이 실려있다.

우의 두 기록을 보면 《증보문헌비고》〈병고〉에는 1627(인조 5)년에 1천마리를 가져다가 군용으로 쓰자고 한것으로 되어있고 《광해군일기》에는 1618년에 그가 이미 1천마리를 바친것으로 되어있는데 두 책이 다 정부에서 주관하여 편찬한것이므로 어느것이 정확한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통하여 명백히 알수 있는것은 첫째로, 1627년당시 김만일이 1만마리의 말을 기르고있었다는것 둘째로, 그 1만마리가운데서 1천마리를 군마로 리용할데 대한 비변사의 제의에 국왕은 400~500마리를 승인하였다는것 셋째로, 당사자인 김만일이 수천마리의 말을 기증하였다는것 넷째로, 어느 정도 살림이 부유한 사람들이 개인말목장을 적지 않게 가지고있었다는것이다.

김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1만마리의 말을 키우는 대규모목장을 운영하게 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당시 국가가 보유한 말마리수와 맞먹는 말을 키울만 한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자면 적어도 200~300명정도의 목자가 필요되었을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조국전쟁직후인 1600년당시 국가에서 장악한 말마리수는 1만 2천마리였고 1604년 5월 국가에 장악된 제주도의 말마리수는 4천 800마리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23년후인 1627년에 김만일이 1만여마리의 말을 길렀다는것은 그가 이미전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말목장을 가지고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가지게 한다.

이렇듯 당시에 전국의 말목장들에서 사양하던 말마리수와 거의 맞먹는 말을 개인이 소유하고있었다는것은 국영말목장이 쇠퇴하고 개인말목장이 크게 장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8세기 3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1736(영조 12)년에 제주도사람인 김하정이 자기가 기른 200마리의 말을 나라에 바칠것을 제기하니 대신들이 그의 말을 받아 나라에서 방목하도록 하고 따로 상을 줄데 대하여 토론한것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물론 당시의 사실을 전하는 력사사실자료들에는 큰 규모의 개인말목장운영을 보여주는것이 몇건밖에 안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많았을것이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이 전해지지 않는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저들의 계급적지배 및 정권유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는 력사기록에 남기는것을 원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1627년 김만일이 운영하는 말목장의 규모와 관련한 자료도 후금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봉건국가가 말의 징발원천을 찾던 끝에 제기된 내용을 력사기록에 간단히 남긴것이었다.

만일 김만일이 소유하고있던 대규모목장을 국가에서 운영하였다면 제주도목장과 같이 많은 기록을 남기였을것이다. 그러나 김만일개인이 운영하던 말목장에 대하여서는 《영조실록》의 1618년 9월조와 1627년 7월조에만 보일뿐이다.

이렇듯 17세기~18세기 중엽에 국가말목장운영이 쇠퇴하고 그 수가 감소되고있을 때 한편으로는 개인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큰 규모의 말목장들이 제주도지역에서 운영되고있었다.

18세기에 들어와 마정은 더욱더 쇠퇴하여갔다. 《증보문헌비고》〈병고〉에는 당시의 마정형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기록되어있다.

○ 숙종 37년(1761) 가을에 흉년이 든것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바치는 공물말을 다음해에는 그만두게 하였다.

○ 숙종 24년(1748)에 지시하였다. 《말에 대한 정사는 나라의 중대사인데 지금이야 더 말할것이 있겠는가. 지난번에 이미 타이르고 경계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여러 신하들이 제의한것들을 들어보면 제주도의 말이 장차 종류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 숙종 46년(1770)에 사복시에서 제의하였다. 《제주관관이 말 3마리를 바치었는데 모두 병들고 여위였습니다. 그를 잡아 처리하기 바랍니다.》 임금이 지시하였다. 《말에게 먹이지 못하기때문이다. 〈례기〉에 기록되어있는것처럼 백성들의 굶주림이 이와 같으니 말이 여위는데를 어찌 론하겠는가. 죄를 론하지 말라.》 그리고는 올해에 말을 바치는것을 그만두라고 지시하였다.

우의 기사들을 통하여 17세기에 이어 18세기에든 마정의 지속적인 문란과 쇠퇴로 봉건국가의 말목장관리운영과 군마, 역마의 관할사업이 한심한 형편에 처함으로써 군사력강화와 교통운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19세기 전반기에도 말목장관리운영사업은 이전시기처럼 어렵게 진행되었다.

19세기 전반기 마정에 대한 《증보문헌비고》〈병고〉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순조 5년(1805) 12월에 사복시에서 각 도의 목장들에서 기르는 말의 수효를 보고하였다. 《이해에 실지 방목한 건장한 암말과 새끼수말은 모두 8 337필입니다.》

○ 순조 15년(1815) 12월에 사복시에서 각 도의 목장들에서 기르는 말의 수효를 보

고하였다. 《이 해에 실지 방목한 건장한 새끼암말과 수말은 모두 7 256필입니다.》

임진조국전쟁직후인 1600년당시 국가에서 장악한 말이 1만 2천필이었던것에 비교하여 보면 이것은 4천~5천여필이나 더 줄어든것으로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쇠퇴과정은 봉건통치배들이 당쟁을 일삼으면서 더 큰 권력과 물질적부를 차지할 생각만 하고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마정을 홀시한데 있었다. 또한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말목장관리운동을 직접 담당수행해야 할 목자들이 심히 령락된것과 관련되어있었다.

봉건통치질서의 문란과 권력을 잡은 지배층의 부패타락은 봉건적인 압박과 수탈을 증대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도탄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빚어냈으며 나라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증보문헌비고》〈병고〉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시기 마정에 대한 자료는 해당 시기 군사력의 일단을 보여주는것과 함께 저들의 안일과 안락만을 추구하고 나라를 쇠퇴하게 만든 봉건통치배들의 죄악상을 보여준다.